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2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1월 1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자본과 결탁한 재판부의 사법살인!!

콜트_콜텍 기타
불매운동으로
끝까지 싸운다

콜텍자본에게 면죄부 쥐어준 사법부

서울고등법원이 콜텍자본에게 새해 선물을 안겨줬다. 새해 시작부터 사법부는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으며 정치판결을 내렸다. 2014년 1월 10일(금)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306호 법정은 자본에게 정리해고의 무한한 자유를 선사하는 자리였다. 콜텍 노동자들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해 재판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고는 정당했다' 고 판결했다. 콜텍 노동자들의 8년의 싸움은 자본과 결탁한 사법부의 판결 앞에서 순식간에 주저앉게 되었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콜텍의 정리해고 법정투쟁은 우리 사회에서 자본의 정리해고가 얼마나 허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싸움이다. 콜텍의 정리해고가 인정된다면 이 땅에서 자본은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현재 아무런 경영상의 위기가 없어도 미래에 사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기 없이 운영되는 회사가 어디 있고, 항상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는 자본이 어디 있나? 콜텍의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해준 재판부 덕분에 자본들은 마음껏 정리해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경영상 위기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스스로 지정한 회계감정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감정평가의 결과는 '정리해고를 할만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다.' 는 것이었다. 법원이 스스로 지정해서 진행한 감정평가의 결과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결국은 자본에게 유리한 판결만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먹었고 자본의 충실한 파트너가 되었다. 사법 정의는 다시 한 번 무너져내렸다.

콜텍자본과 끝까지 싸운다!

사법부의 장난에 법정투쟁은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되었다.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기에 마지막 대법원까지 법정투쟁도 힘차게 전개할 것이고, 콜텍 자본을 상대로 한 불매운동도 더욱 더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다. 악덕한 자본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나서도 떵떵거리는 모습을 두고보진 않을 것이다.

사법부의 정치판결! 노동자는 다 죽는다!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조파괴 사업주 처벌은 우리 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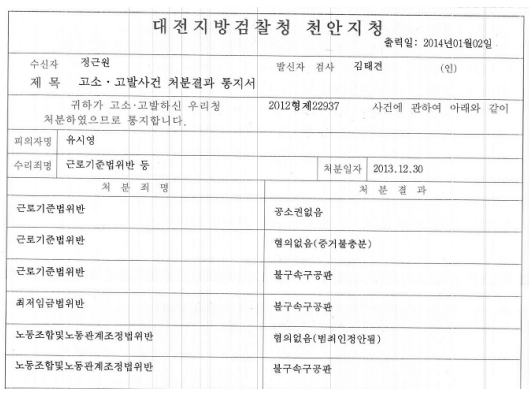
콜텍의 투쟁이 재판부의 정치판결로 시련을 겪는 사이, 노조파괴 사업장들은 검찰의 장난질에 눔물을 흘려야 했다. 유성, 보쉬전장, 콘티넨탈 등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분결과가 아주 형편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회, 노동부에서 전부 밝혀진 사건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되었다. 검찰이 작정하고 자본을 비호한 것이다.

금속노조 산하의 노조파괴 사업장 5곳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면 가관이다. 106건의 혐의 중에서 불구속기소 22건, 약식기소 8건에 불과하고 구속기소는 단 한 건도 없다. 특히나 노조파괴 혐의로 설립취소된 창조컨설팅과 관련된 혐의는 전부 무혐의 처리되었다. 살인기술을 가르쳐준 놈은 처벌받았는데, 직접 살인을 저지른 놈은 무죄라는 것이다.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지, 법을 피해 자본을 비호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그나마도 기소한 혐의는 전부 아주 가벼운 혐의들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전부 피해가고,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법 위반 정도만 기소처리했다. 적당히 처벌하는 듯하게 흉내만 내고 핵심은 비껴가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사실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노조파괴 사건이 수사된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동안 검찰은 노동부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검찰에 2차례에 걸쳐 사업주 구속기소를 의견으로 올렸으나, 검찰이 지속적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며 노골적으로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이제 검찰의 맨얼굴은 확인했다. 남은건 현장의 힘으로 자본을 심판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대로 하지 않겠다면 현장에서 응징할 수밖에 없다. 자본에게도 공장장 한두명 구속되는 것보다 현장에서 금속노조가 힘을 갖는 것이 훨씬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제 자본이 가장 싫어할만한 금속노조의 투쟁을 보여주면 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출력일: 2014년01월02일

수신자 정근원 발신자 검사 김태견 (인)

제 목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청 2012형제22937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유시영		
수리죄명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분일자	2013.12.30
처 분 죄 명		처 분 결 과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권없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근로기준법위반		불구속구공판	
최저임금법위반		불구속구공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불구속구공판	

어용노조의 마지막 발악은?

어용노조가 궁지에 몰리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은 무엇일까? 유성기업을 보면 답이 나온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노조파괴에 맞서 정말 피터지게 싸워서 다시 과반수 노조를 차지했다. 자본이 수백억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금속노조를 깨지 못했고 다시 금속노조가 현장권력을 잡아가고 있다. 2014년이 시작되자마자 유성지회는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자 어용노조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잃을까봐 두려워 조합원 숫자를 뻥튀기 한 것이다. 뒤로 몰래 관리자들을 추가로 억지 가입 시킨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짓말로 조합원 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어용노조가 할 수 있는건 거짓말 뿐이라는게 들통났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민주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다. 지금껏 유성기업을 비롯해 콘티넨탈, 보쉬전장, 엔텍 등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어용노조가 보여준 모습은 '노조'가 아니었다. 사용자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이런 어용노조들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은 결국 유성기업에서 보듯이 거짓 혹은 추잡한 발악일 뿐이다.

"올해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통상임금"

기업들은 올해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꼽았다.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심리도 높게 나타났다. 한국경총이 회원사 232곳을 상대로 '201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벌여 12일 발표한 결과다.

기업들은 올해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한 분야로 공공 및 공무원(18.8%)과 대기업 및 공기업 협력업체(16.4%)를 꼽았다.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는 통상임금 범위확대(2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18.3%)·근로시간 단축(13.6%)·정치권의 친노동계 입법활동(13.6%)이 뒤를 따랐다.

기업 4곳 중 3곳(76.3%)은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42.7%)보다 33.6%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반면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은 21.1%, "더 안정될 것"이라는 대답은 2.7%에 그쳤다.

기업들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임금인상(36.6%)과 복리후생제도 확충(21.8%)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13.4%)와 정년연장(9.4%)·근로시간단축(5.0%)을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1.8 보쉬전장지회 출근투쟁>



<1.9 콘티넨탈지회 출근투쟁>


<1.10 콜텍 고등법원 판결>



<1.10 콜텍 고등법원 판결>